

CONTENTS



MESSAGE

04 격려사 | 이사장 김석한

05 발간사 | 교장 김정현



BOIN HOT ISSUE

06 7기 학생회 |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최상의 보인 구축할 것

10 YOU CAN DUET | 학창시절의 시원한 오아시스, 2014 방송제

12 동아리 탐방 | MVP(Making Video Project)

15 Photo & Poem | 단풍(이상국 시인)



BOIN PEOPLE

16 선생님, 우리 선생님① | 4년 교직생활...한신의 대명사, 문우식 선생님

20 선생님, 우리 선생님② | 유머의 신 갓(God) 민수...지구과학 류민수 선생님

24 선생님, 우리 선생님③ | 학생인가 교사인가? 철학 & 역사과 박진석 선생님

27 선생님, 우리 선생님④ | 꽃을 품은 무화과처럼...국어과 공혜림 선생님

31 직업탐방 | tvN의 '식사를 합시다' 박준화 PD

BOIN ACTIVITY

34 월드컵 그 이후 | 뜨거운 열기가 지나간 축구 시장,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35 Photo & Poem | 연탄 한 장안도현 시인)

36 영화 & 드라마 | 시계바늘이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이유

38 그곳이 알고 싶다 | 추억과 '힐링'이 공존하는 남이섬

BOIN DREAM

40 아이스 버킷 챌린지 | 차가운 얼음 바가지로 깨어난 밝은 미래로의 약속

42 알고 타는 자전거 | 바퀴 굴러 만나자, 새로운 세상과의 놀라운 교감

44 자사고 폐지 논란 | 이상과 현실 속, 혼란스러운 교육계

BOIN NEWS

46 보인 스케치

BOIN NETWORK

48 외부 양케이트 | 무작정 잡고 물어본다!

50 선생님 양케이트 | 살짝 물어본 선생님 비밀, 남다른 속마음들

51 창덕여고 | 우리들은 모르는 금남의 공간! 궁금하지 않으세요?!

54 1, 2학년 양케이트 | 아직 갈길 멀고 할 일 많은 우리들 인생사

56 3학년 양케이트 | 후배들아, 꿈은 크게 잡고 달려가라

58 만족도 조사 | 보인고 교복 만족도 조사

59 편집후기





우리 보인의 후배들이 바른 '인성'으로 각자 목표한 곳에서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는 행동에 결코 다름이 없고, 끈기와 인내를 키워 주저함 없이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교 선생님들도 인성이 바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표와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른 인성, 참된 실력으로 보인의 새 역사 쓰기

올미년 청양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인가족의 모든 가정에 희망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4년을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마음 아픈 일과 경제적 난제들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지만, 2014년을 '보인 도약 제2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쟁과 변화를 주도하는 선두에 서자는 보인의 목표 아래,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진하여 힘차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인성과 실력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참된 교육의 장'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우리 보인고등학교는, 서울을 대표하는 명문 자사고로 공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며 신뢰받는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신(又新)'의 가치를 함께 실천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이기에 보인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학교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 최고의 2015년도 준비하길 덧붙여, '변화'와 '발전'이란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되돌아 아쉬움이 없을 최고의 2015년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올해는 교지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기를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의 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상황으로 목표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의 계획들을 수정하고 그에 맞게 재설정된 목표 앞에서, 잊고 지나가는 다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잊혀가는 다짐 중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

려우면 초심을 돌아보고 성공하면 마지막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항상 경계하고 처음 시작할 때의 생각과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생활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분명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인의 후배들이 바른 '인성'으로 각자 목표한 곳에서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는 행동에 결코 다름이 없고, 끈기와 인내를 키워 주저함 없이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10년 전 대주학원을 세우며 고심했던 '날로 새롭게, 바르게 살자, 베풀며 살자'의 교훈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바른 인성, 참된 실력 키우며 원하는 목표 달성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교 선생님들도 인성이 바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표와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른 인성, 참된 실력을 키우며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크게 다가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2015년 '양'의 해를 맞아 양처럼 순하고 어질고 착한 성품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고, 나를 아끼는 만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실천해, 진정 우리가 '보인가족'임을 소중히 느끼게 되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한 교지편집부 학생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고,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교지를 가득 채울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학교 생활의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법인 대주학원 이사장 김 석 한

보인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고픈 세 가지 이야기



보인고 교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볼 즈음이면, 1, 2학년은 2, 3학년 학습계획을 짜는 것으로, 3학년은 졸업 후 새 생활설계를 구상하는 일로 바쁘게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던 3가지 내용을 적어보는 것으로 발간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① 긍정은 성공의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살지다'는 형용사로서 탐스럽게 살이 많은 상태를 가리키고, '살찌다'는 동사로서 살이 불거나 많아지는 작용을 나타냅니다. 일단 삶을 살지게(또는 살찌게) 한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긍정에는 성공의 힘을 내포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창각 장애인이며 작가인 어느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루기 힘든 전문직을 갖고 청중 앞에서 강연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은 강의 중에 "어리석게도 그 동안 못 가진 것에 대한 불만만 가졌었다."고 말하며 결핍은 없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곧 에너지고 새로움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헬렌켈러와 베토벤을 머리에 떠올리며 긍정의 힘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긍정적 사고와 능동적 노력으로 채워가며 나만의 이름을 가진 삶의 세계를 창조해 내야 하였습니다.

② 꿈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에 동화책과 위인전을 즐겨 읽었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체험활동에 참여함은 물론 독서를 다양하게 하며 꿈 세우기 캠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

과 및 비교과의 교육활동을 통해 융합적 지적체를 연마하면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시야를 넓혀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식과 견문을 넓히는 학습이요, 꿈을 찾는 활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로를 탐색하는 가운데 어느덧 1,2학년은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3학년은 고등학교를 넘어 대학생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구체적인 꿈을 꿀 때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일생동안 자신의 능력 3~7% 정도만 발휘하고 나머지 93~97%는 찾아내지도 못하고 수명을 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는 눈과 찾는 눈을 키워 크고 구체적인 꿈을 세우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서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③ 소통하는 지도자로 거듭납시다. 현 사회 대중의 화두는 소통인데 정작 소통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사회의 단면을 관찰해 보면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인 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수용해 줄 때만 소통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이는 남의 의견을 듣는 것조차 인색하면서 남에게 소통하라고만 외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특히 경쟁단체간의 불통이 심하고 세대별 소통도 막혀 있으며 심지어는 거주 지역별 이기주의가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걸림돌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의 부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었나 봐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한 어느 어린이의 외침도 우리 사회 불통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불통으로 인한 답답한 사람이 어찌 어린 이뿐일까요? 그 상황은 태양이 겹겹의 먹구름 속에 갇힌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경쟁 집단, 다른 세대, 노사, 빈부, 이웃 간에 서로 경청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도 대화를 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완벽한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꿈을 가진 자의 긍정적 사고는 목표를 이루고 소통을 낳게 할 것이며 또 다른 긍정의 힘을 배양해 낼 것입니다.

끝으로 2014학년도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여 교지에 담을 좋은 내용을 창출해낸 전교생과 교지를 알차고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방학 내내 애쓴 편집위원과 지도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롯한 보인 교육가족 모두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인고등학교 교장 김 정 현

제7대 학생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학우들과 새로이 채워나갈 보인 7기 학생회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최상의 보인 구축할 것

글, 취재 | 정영준, 이정현



지난 2학기부터 출범한 제7대 학생회에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학교발전포럼
이나 다양한 학교행사 등 보인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학생회의 시선에서 볼 때, 학생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리 학우들과 함께 명문 보
인 구축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2015년 7기 학생회의 큰
도전을 기대해 본다.

제7대 학생회의 세 가지 공약

이번 제7대 보인고등학교 학생회에서 내세운 세 가지의 주요
공약은 두발 규제 완화, 학사 일정 변경, 외출증 폐지입니다.
그 중 첫 번째인 외출증 폐지는 학교발전포럼을 통해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쉽게도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약인 학사 일정 변경은 이제야 학교에서 2015학년도 학사
일정을 짜고 있고 저희 학생회에서도 스스로 만든 학사 일정이
2015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
력하고 있기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공약인 두발 규제
완화는 일단은 지켜봐야 할 사항이지만, 학교 선생님들과 회의
한 결과 선생님들께서도 두발 단속으로 학생들과 얼굴을 붉히
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학교 이사장님께서 두발 허용을 원
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칙을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의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생 여러분을 배려하자는 쪽으로 결
정되었습니다.

학생회의 남모를 고충

저희 학생회는 학교발전포럼이나 학교행사 등 학교를 위해 열
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회가 한번 움직이면, 약 30
여명 가량의 많은 인원들이 움직여 행동하기에 힘든 점이 많은
데 이번 외출증 폐지 건과 같이 진행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 버
리면 일반 학생들의 시선에서는 학생회가 하는 것이 없다, 학
생회 뭐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회도 학
생회이기 전에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위해서 공부도 신



경 써야 하고, 학생회 활동이 보이는 일 외에도 다른 활동이 많
아 야간자율학습 시간이나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활동하
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이 학생회가 하는 것도 없다는 등의 말을
한다면 학생회는 정말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학생 여러분들의 학교에 대한 의견은 학교 운영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학교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학부모님들이 포럼 등에서 학교
에 제기하는 것처럼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은 학교 운영에 영향
을 많이 줍니다. 저희 학생회에서 한 문제를 두고 협상하거나
토론할 때에도 학생회 내의 의견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지지하
는 여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학교 운
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점
은 학생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각 학생의 의견
이 모든 학생의 의견은 아니며, 두발규제와 같이 확고하고 틀
에 박힌 교칙에 대한 의견은 학생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
으나 교칙을 수정하기는 힘들기에 이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학생 여러분들
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은 듯합니다. 저희 학생회가 모
든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다 듣고 따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
력하고 있으니 학교발전포럼과 같은 학교 내의 행사에 주체적
으로 참여해 학교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
입니다. [補仁]

제7대 학생회 인터뷰



학교와 학생 이어주는 튼튼한 돌다리가 되겠습니다

- 사회 : 정영준, 이정현
- 대담 : 2학년 학생회장 정환우(A), 2학년 학생부회장 김우식(B)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회장 정환우, 2학년 학생부회장 김우식입니다.

Q 학생회의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A 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다 전달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고요,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과 학교와 학생들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다방면에서 학교에 도움이 될만한 일을 합니다.

Q 학생회의 공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B 이번 공약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약이었던 외출증 폐지는 학교발전포럼을 통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히 결론지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공약이 지켜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봐요. 두 번째 공약인 학사 일정 조정에 관해서는 이제야 내년 학사 일정을 짜고 있고, 저희가 스스로 만든 학사 일정이 내년에 반영되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약이었던 두발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일단은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 선생님들과 회의한 결과 선생님들께서도 두발단속을 하면서 학생들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학교에서 가장 높으신 이사장님께서 두발규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칙을 새로 제

정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의 허용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고, 저희도 이 점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Q 학생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A 저는 일단 이번 학교발전포럼에서 느낀 건데,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한번 학생회가 움직이면, 약 30명 정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활동을 했는데 외출증 문제처럼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의 시선에서는 학생회 뭐 하나,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말을 들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B 저희도 학생회이기 이전에 학생이잖아요. 대학 가려면 공부도 신경써야 되고, 그리고 학생회가 하는 일들이 보여지는 일 외에도 허드렛일 같은 일이 많아서 없는 시간 쪼개고 쪼개서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애들이 “너는 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학생회냐”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Q 학생회 출마 계기가 무엇인가요?

A 단순하게는 하고 싶어서 나왔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대해 많이 알아가고 학교가 부족한 점도 알기에 그 부분을 제가 고쳐보고 싶었죠. 그리고 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시선과 책임이 뒤따르고,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올라서서 좀 더 학교와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출마하게 된 것 같아요.

B 솔직하게 저는 제가 학생회를 맡지 않으면 학교가 후퇴할 것 같았어요. 그게 출마 계기예요.

Q 학생회는 학생들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실제로 학교 운영에 영향을 주나요?

B 학생들의 의견은 실제로 영향을 주죠. 근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얘기하는 것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실제 학교 운영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A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학생회가 어떤 문제를 두고 토론하거나 협상을 할 때 학생회 자체 내에서 의견을 낸다고 보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지하는 여론을 밀어붙이는 쪽이라 저희가 주장하는 의견이 학생들이 주장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영향을 많이 주죠.

B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보통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나의 의견이 곧 학생들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용되는 의견과는 다른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이 일괄적으로 통일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A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도 그랬지만 대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불만이 많은 두발규제와 같은 완전히 확고한 규율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내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회에 의견을 냈는데 왜 들어주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Q 학생회로서 보인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학생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다 듣고 따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학교발전포럼이나 학교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B 저희 학생회는 내년 1학기면 임기가 끝나지만, 그 이후에도 학생 여러 분들이 학교 운영이나 행사에서 주체적으로 관여하여 학교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Q 수고하셨습니다.



2학년 학생회장 정환우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어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다 듣고 따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학교발전포럼이나 학교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2학년 학생부회장 김우식

보통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나의 의견이 곧 학생들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용되는 의견과는 다른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이 일괄적으로 통일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인고 방송제, 세 번째 이야기

YOU CAN DUET... 열광의 현장 속으로 학창시절의 시원한 오아시스, 2014 방송제

글 | 이정현

2012년 <VOICE OF BOIN>, 2013년 <BOIN'S GOT TALENT>에 이어 올해 연말, 세 번째 방송제 <YOU CAN DUET>이 개최됐다. 매년 방송제가 그러하듯, 이번 방송제 <YOU CAN DUET> 또한 보인고등학교 방송부 BBS 부원들이 직접 100% 기획하고 추진했다. 지금까지 매년 열려왔고, 앞으로도 매년 열리게 될 보인고등학교 방송제. 그 준비과정과 방송제 당일의 뒷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지난 12월 26일, 대주관에서 2014 방송제 <YOU CAN DUET>이 개최됐다. 올해로 세 번째 공연을 맞는 <YOU CAN DUET>은 본 경연에 올라갈 TOP6을 결정하기 위한 예선전에만 총 50여명, 19팀이 지원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다. 1차 예선으로 예선전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예선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참가자들이 참여를 간절히 원하여 2차 예선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TOP6에 이름을 올린 참가자는 반치음(변경도, 김재원), 육97사(김현성, 김진솔, 박정우), 청출어람(이태양, 연상준, 백소명, 현상민), 4인규(서동호, 강인환, 장주원, 김대희), 별써일년(송의현, 채제우, 최민석), 보드마카(강병준, 배성철, 우태린)이다. 각 팀 모두 개성 강한 무대와 그에 걸맞는 무대매너로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엘 시스템아와 크로스로드의 축하공연과 잠실여자고등학교 댄스동아리의 찬조

공연은 학생들의 반응을 최고조로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예년의 방송제와 다르게 2014년에는 우승자와 준우승자 선정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2명의 학생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선생님 심사위원(한송이 선생님, 김용진 선생님)의 점수와 학생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된 <YOU CAN DUET>의 최종 우승 듀엣팀은 청출어람. 근소한 차이로 준우승을 차지한 육97사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YOU CAN DUET>은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방송부 BBS(임성록, 채수환,

김선진, 이명준, 서찬열, 이동원, 성기범, 이재정, 한승현, 윤성호, 유예찬, 이상빈)가 개최하고 있는 방송제이다. 3년 내내 3번의 방송제를 개최하면서 방송부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 올해 또한 완성도 높은 방송제 무대를 선사해 준 방송부원들과 방송제 무대에 올라 끼를 펼쳐준 TOP6,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보여준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학생 심사위원, 방송제 무대에 큰 환호와 박수를 쳐준 학생관객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공부하느라 지친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는 방송제.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벌써 기대가 된다. **輔仁**



2014 방송제가 <YOU CAN DUET>이란 슬로건으로 12월 26일, 대주관에서 개최됐다. 2012년 <VOICE OF BOIN>, 2013년 <BOIN'S GOT TALENT>에 이어 세 번째 공연을 맞는 이번 행사는 본 경연에 올라갈 TOP6을 결정하기 위한 예선전에만 총 50여명, 19팀이 지원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다

○ 방송부원이 솔직히 전하는 '방송제 일기'

방송부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피어나는 꽃

글 | 임성록 (방송부장)

매년 열리고 있는 방송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해 할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방송제 준비과정을 소개해보려 한다. 3년간 성공적인 방송제를 개최하고 있는 방송부 BBS가 그 비밀을 공개한다!

방송제 특징 정하기

매년 진행되는 방송제. 자칫 모두 같은 포맷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매년 다른 특징을 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VOICE OF BOIN>은 '보컬리스트'가 특징이라 노래를 잘하는 학생을 뽑았고, 2013년 <BOIN'S GOT TALENT>는 '다양한 재능'이라는 특징을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였고, 다양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개최된 2014년 <YOU CAN DUET>은 '하모니'라는 특징을 필두로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며 무대를 꾸려나가는 학생 위주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렇듯 매년 다른 특징으로 방송제를 진행하기 위해 연초에 방송부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합니다.

공연의 기본적 틀 짜기

방송제 특징을 정한 뒤에는 방송제 당일에 진행될 공연의 큰 틀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연에 몇 팀을 올릴 건지, 찬조공연을 부를 건지, 공연을 몇 시간 진행할 건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정해집니다. 선생님들과 방송부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최적의 조건에서 최상의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장 힘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방송부의 가장 큰 활동인 만큼 방송부원들이 구상해놓은 방송제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며 합의점을 도출하고, 구체화해나가는 과정 또한 진행하게 됩니다.

예선 준비

공연의 기본적인 틀을 모두 짰 뒤, 포스터를 만들고 음악실과 교과교실을 대실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학생 지원! 사실 이 때가 가장 조마조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진행한 방송제는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지원이 많았는데, 혹시나 지원이 적을까봐 걱정이 되었었죠. 그렇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엄청난 참여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준비한 방송부원들 모두 걱정을 한시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원이 마무리되면 음악실에서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방송부원들과 선생님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 TOP6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TOP6에 오르지 못한 지원자 여러분들도 모두 잘하셨으니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요!

대본작성, 영상 촬영 및 편집

사실 보인고등학교 방송제는 다른 학교의 방송제와 매우 다르게 진행됩니다. 타 학교 방송제는 영상 상영 위주로 진행하는데 반해 BBS가 진행하는 방송제는 공연과 영상 모두를 중시하기 때문이지요. 선배님들과 동기들 모두 영상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허투루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방송부원 모두 품질 높은 영상을 선보이기 위해 정말 밤을 새가며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와 동시에 방송제 당일에 MC들이 말할 멘트들과 공연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대본도 완성시켜 나갑니다. 이 과정부터는 선배들한테 많이 혼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참고 또 참고합니다.

리허설

아무리 연출을 열심히 하고 머릿속으로 구상을 잘 해놓아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높은 완성도를 지닌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방송부는 방송제 당일 전에 총 2번의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대주관에서 방송부원들끼리 한번 실제 방송제처럼 진행해보고, 그 뒤에 다시 TOP6과 방송부원 전체가 모여 실제 방송제 무대처럼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리허설 한 번 하고 나면 몸이 매우 힘들지만, 방송제를 기대해주는 학생들을 위해 또다시 달려봅니다.



대망의 방송제

아무리 리허설을 여러 번해도 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송부원을 대표하여 글을 적고 있는 저도 작년 <BOIN'S GOT TALENT>도 준비하여 올해가 두 번째 공연 기획이지만, 방송제 당일 아침에는 여전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음향 및 조명 기기를 대주관으로 옮기고 마지막으로 대본대로 짧게 리허설을 하면서 긴장을 달래봅니다. 공연시간이 다가올수록 방송부원들의 긴장은 커져만 갑니다. 1층과 2층에 관객이 가득차고 안전이 되면서 오프닝 영상이 나올 때의 그 심정! 그 심정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고 뿌듯합니다. 학생들의 공연이 진행될수록 관객들의 환호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방송제가 모두 끝난 후, 방송부원들과 화식을 하면서 그 대장정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듯 방송제는 매년 방송부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공적으로 방송제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학교 선생님들과 김태형 선생님, 선배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부원 동기들과 후배들 모두 수고 많았어! 내년에도 우리 후배들을 주축으로 방송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년 방송제도 지금껏 그래왔듯이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컴백할 것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VP(MAKING VIDEO PROJECT)

기발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진정한 MVP 길을 향해

글 | 박상준
취재 | 민정원, 박상준, 김은빈

작년에 새로 개설된 영상제작 동아리 MVP가 최근 많은 영상들로 인기를 끌고 있다. 페이스북 홈페이지의 '좋아요'가 700개를 넘는 MVP! 하지만 의아하게도 MVP는 아직 비공식 동아리다. 그래서 이번 PlayBoin에서는 MVP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P: PlayBoin, S: 서정민, H: 박현재, L: 이도현, I: 박인성)

P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 PlayBoin입니다. 그럼 인터뷰를 시작할까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MVP란 어떤 동아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H 안녕하세요. 저는 MVP의 차장이자 편집팀에 속해있는 박현재입니다.

I 안녕하세요. 저도 MVP의 차장이자 기획팀에 속해있는 박인성입니다.

L 안녕하세요. 저는 MVP의 기획팀에 속해있는 이도현입니다.

S 안녕하세요. 저는 MVP의 부장 서정민입니다. 저희 동아리 MVP는 보인고 영상제작 동아리 Making Video Project의 줄임말이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동아리로서 영상을 제작하고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람들과 소통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동아리입니다. 물론 영상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P 동아리의 업무가 다양할 텐데 부서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요?

S 저희 동아리는 크게 3가지 부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팀, 두 번째는 연기팀, 세 번째는 편집팀입니다. 기획팀은 토의를 하며 어떤 영상을 기획할 것인지 정합니다. 연기팀은 영상에 출연하는 것을 위주로 연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집팀은 기획한 영상에 대하여 마지막에 편집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I 물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서에 관계없이 역할이 불분명해질 때도 있습니다.

P MVP를 만든 이유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S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5반 친구들 중에 현재와 인성이같이 영상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이런 것을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영상제작 동아리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P 그 동안의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L 저희 활동을 시간의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3월에 현재의 편집 능력이 공개된 동아리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하여, 1학기 구기대회 하이라이트, 좋아요 100개를 최초로 기록한 체육대회 오프

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신여고 영상동아리, 여우별과의 합작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영화제에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오프닝 영상, 제 일상을 담은 도현TV 등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P 영화제 얘기가 나온 김에 영화제에 출품한 영화 '이카루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S 저희 이카루스의 기획 의도는 영화상 정인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중요시하면 학생들을 억압하는 정인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함께, 오준택 학생이 전 학생 수아라는 친구로 인해서 자신이 공부를 허느라 잊고 살았던 꿈을 다시 되새기는, 꿈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열정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P 청소년 국제 영화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S 영화제 참가팀들이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등으로 다양했고, 타 영화제에서 대상을 탄 작품도 나올 만큼 수준이 높아서 저희는 아쉽게도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화제의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좋은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야기는 없었나요?

I 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정민이 생일날 촬영을 진행했었어요. 전날부터 부원들이 돈을 모아서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촬영이 진행되기 직전에 몰래 놀래키기로 했어요. 그 때 정민이가 촬영을 진행하기로 한날 기분이 안 좋아보였는데, 부원 한명이 1반으로 가서 열쇠를 가지고 외달라고 했었고 정민이가 들어올 때 깜짝 파티를 했었죠.

S 의기소침한 상태였는데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해줘서 마음속으로는 정말 평평 울었어요. 정신여고 부원들도 참여했던 이벤트라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원들이 들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생일축하영상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릴 예정이에요.

P MVP의 영상들을 볼 때마다 이런 영상들을 누가 어떻게 구상했을까 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나요?

L 저희 학교에 방송동아리가 있잖아요, BBS에서 멋있고 정교한 역할을 하는 팀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아마추어들도 많이 모였고, 실력이 뛰



영상 제작 동아리 MVP(Making Video Project)는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이를 많은 이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사람들과 진실한 소통을 하겠다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개설된 지 1년 밖에 안됐지만 MVP의 활동과 열정은 다른 전통적인 동아리들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어난 친구들도 많지만, 아무튼 열정을 보고 뽑은 것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신선한 아이디어, 기발 함, 고등학생이 낼 수 있는 그런 재미위주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P MVP에서 실제로 박현채 군이 편집을 해서 많 이 올리고 그래서 소문나기로는 완전히 박현채 군 이 하는 게 아닌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H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요, 그때마다 솔 직히 조금 불편하고요, 솔직히 MVP의 이면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서...제가 편집을 잘하고 많이 하기도 해요. 티저 영상이나 홍보영상도 MVP 초창기부터 제가 다 올려왔으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축구영상도 어느 정도 다른 부원들의 힘을 빌렸고요, 섭외하는 면에서도 지식이나 정민이와 같은 애들의 힘을 빌렸고, 생활 규칙 UCC같은 경우 도 연출과 연기도 도현이나 인성이 대부분을 참 여해주었어요. 저는 솔직히 영상 한부분에서 20프 로정도 밖에 안 돼요. 다른 애들이 오히려 영상 사 전작업을 해주니까 제 영상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S 제가 정리하자면 현재 군의 능력은 정말 뛰어납 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다른 부원들도 각자의 할

일과 능력이 있고, 많은 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현채 군이 뛰어난 것은 맞 지만 모든 부원의 합작품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P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식동아리가 학교에서 자 금을 받는 것과 달리, MVP는 사설동아리잖아요. 이러한 자금적인 측면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말해 주세요.

H 방송장비를 학교에서 지원과 상관없이, 방송장 비는 1~2개만 있어도 영상 찍기에는 별문제가 없 어요. 물론 장비가 많으면 편하겠지만 장비가 없어 도 그 장비를 돌려쓰면 영상의 퀄리티에는 따로 문 제가 없는 것 같아요.

S 올해는 2학년들이 이끌어서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였지만 내년에도 올해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I 솔직히 그게 가장 걱정돼요. 아무래도 2학년들 까리는 원래 알았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1학년들은 따로 신청을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영 상을 찍으면서 1학년들이 많이 참여한 부분이 있 고, 그래도 최근에 1학년들이 내년 부장을 뽑기 위 해서 '나는 MVP다' 라는 영상을 기획한 것도 있는

데 기획한 친구들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있어요. 그 리고 현재만큼 편집 잘하는 1학년들도 있어서 다 행이에요.

P MVP가 실제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많은 인 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MVP에 들어오 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팀이나 조원 좀 말씀해주 세요.

L 지금은 그래도 2학년 위주인데, 영화 제작하기 와 같이 크게 기획한 것이 많은데, 내년에는 많은 영상들을 기획해서 빨리 친해지면 좋겠어요. 기발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다 적극적으로 하는 동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I 올해는 확실히 세월호 추모영상처럼 진지한 동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너무 무겁다는 이미 지도 있고 실제로도 가벼운 주제를 다뤘요. 면접 볼 때도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니까, 관심 있으 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P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내 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 도 받고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감사인사 같은걸 해주세요.

I 일단은 영상에 관여하신 분들, 출연하신 분들이 나 도움을 주신 분들이 하나하나 읊을 수 없을 정도 로 되게 많은데, 선생님들도 감사하고, 특히 담당 선 생님인 이영석 선생님께서 늦게까지 남아서 도움주 시고 항상 동아리에 신경써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정 신여고 미디어 홍보부 여우별에게도 고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동아리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좋아요'가 777개를 넘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필자는 동아리 부원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함께 참여한 분들께 매우 고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도 이 기사를 통해 MVP에 대해서 자세히 알 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설된 지 1년 밖에 안됐 지만 그들의 활동과 열정은 다른 전통적인 동아리 들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MVP의 인기는 바로 이런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학생들이 이 글을 읽고 MVP에 더 많은 관심을 가 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내년에도 MVP가 지금처 럼 뜨거운 열정과 많은 영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영상동아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輔仁**

단풍

글 | 이상국



나무는 할 말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잎잎이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다

봄에 겨우 만났는데

가을에 헤어져야 하다니

슬픔으로 몸이 뜨거운 것이다

그래서 물감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며

계곡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시인 이상국

1946년 강원 양양에서 출생. 1976년 '심상' 신인상으로 등단. 민족문학작가회의 강원지회장과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백담사 만해마을 운영위원장으로 있다. 백석문학상과 민족예술상, 유심작품상, 불교문예작품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해별곡', '내일로 가는 소' '우리는 읊으로 간다' '집은 아직 따뜻하다' '어느 농사꾼의 별에서' 등 시집 다수.

41년 교직생활...현신의 대명사,
문우식 선생님

양보와 인내로 언제나 평화로운 보인인의 삶 되길



글 | 채현민, 취재 | 채현민 · 강지환, 사진 | 김은빈

항상 학교의 청결을 위해 몸소 봉사하시고, 등굣길과 급식시간 때 마다 우리의 안전을 걱정해 주시며 뛰지 말라 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 바로 문우식 선생님이다. 현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문우식 선생님의 일생이 늘 궁금했던 필자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선생님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인터뷰를 했다. (P : PlayBoin, M : 문우식 선생님)

P 그럼 질문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선생님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M 뭐 소개 할 게 있어야지... 교직 생활을 오래했으니 할 말이 그거밖에 없지... 내가 고등학교는 경기상고를 졸업했고, 대학은 연대 상과. 거기를 입학하게 된 동기는 난 처음에 거기 갈 생각이 없었는데 고3 담임선생님이 평생소원이 연대 상과였어. 그런데 거길 몇 번 낙방하고 결국 포기하고 연대 수학과를 들어가 수학교사가 되겠다고. 그제 뺏속에 사무친 한이셨어. 그래서 그때 연대에서는 입학생의 10프로인가 20프로 범위 내에서 그 학생들은 학교 성적 최우수자들을 면접만으로 전형해서 합격시키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에서 나를 그 연대 상과에 무시험 전형에 추천을 하신거야. 면접 통지가 왔어. 난 알지도 못했는데, 그 면접을 보러 갔더니 합격 했다고 통지가 왔더라고. 그래서 대학 시험은 보지도 않고 면접만으로 연대 상과를 들어가게 됐지. 지금 너희들 상과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 무슨 장사하는 과인가? 라고 생각될 텐데, 요즘으로 치면 경영학이야. 지금은 그렇게 바뀌서 말하는데, 연대 경영학과에 들어갔다고 보면 돼.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부산을 가서 직장생활을 딱 50일을 했어. 내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아서 다시 올라와서 학장님에게 분위기가 맞

지 않아 그만 뛴다고 말씀드렸더니 추천해 주신 곳이 동구상업이라고 상업학교 인데, 내가 상고를 나왔으니까 교과 과목 중 실업과목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에 가장 적응하기 쉬울 테니까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갔어. 그게 학교생활의 처음 시작이 된 거지. 거기서 2년, 그 다음에 서울 여자 상업 고등학교에서 23년을 근무했지. 그리고 이제 속초에 있는 동우대학이라고 신설대학에 경영학과에서 10년을 근무하고 왔지. 그리고 보인고로 올라올 때, 그때는 상고였지? 보인 상고의 교장을 하시던 분이 최만희 교장선생님인데, 내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였어. 그래서 내가 학교생활을 마치고 올라온다고 하니깐 자기한테 먼저 좀 올라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이 학교를 찾아왔지. 나중에 정보산업 고등학교로 이름을 개명했지만 똑같이 상고지. 그러더니 갑자기 백목(분필)을 들려 주더니 수업에 들어가라는 거야. 왜 그런가 하니, 내가 상고 선생을 할 때, 회계 원리를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과목이야. 너무 어렵고 대학 땀 학점도 안 나와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상고생들에겐 필수과목이었지. 그런데 모든 학문이 가지는 공통점이 그 학문을 빨리 이해하려면, 우선 기초 용어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야지. 그 개념이 머리에서 정리가 안 돼서 어려운거야. 그래서 고민했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쉽게 회계 원리를 가르칠까 연구하다가 회계 원리에 관한 교

과서를 썼어.(!) (아 교과서도 쓰셨어요?) 응. 그러더니 그게 검인정교과서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학교 보인상고에서도 내가 쓴 교과서로 회계 원리를 배웠어. 최 교장이 내가 작가니까 학생들이 나름 흥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 학교에 발을 붙이게 된 거야.

그때가 200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학교와 인연을 맺고 살았지. 그런데 중간에 1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어. 이사장님이 여기를 인수해서 인문고로 바꿨잖아. 그 이유가 더 이상 상고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어져서야. 컴퓨터 때문에. 회계 원리 지식을 알고 회사가 돌아가는 방향을 아는 학생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컴퓨터 등장으로 인문계 학생들도 다 할 수 있게 되자 실업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 그래서 보인상고도 남너 공학으로 바뀌서 여학생까지 오게 했는데 그래도 학생모집이 너무 안돼서 학교 경영유지가 힘들었어. 이 사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학교를 인문학계로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이사장님이 학교를 인수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지. 인문학교로 바뀌니까 내 일이 없어 진거지. 내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 진거야.

그렇게 해서 1년을 쉬게 되었어. 그런데 지금 현재 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김영식 교장선생님이, 그때 인문계 일 때 부장선생님 이셨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 새로 인문계 1학년 학생을 뽑아야 하는데 2, 3학년 학생들은 아직도 상고생이잖아. 그 당시에 상고생들이 좀 거친 애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 학생들 선생이었던 나보고 관리 좀 해달라는 뜻으로 나를 불렀지. 나도 그 녀석들이 보고 싶더라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니까 못 봐서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심성은 착한 녀석들이었거든. 그래서 처음에 약속하기를, 지금 상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 까지만 내가 하겠다고 했지. 그때 인문고 학생들은 지금 중학교 건물에 반을 배정받고 상고 학생들은 본관에서 수업을 했어. 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녀석들이 절대로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지켜서 한 사람도 졸업할 때 까지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 없었어. 정말 의리 있는 녀석들이었지. 난 그 녀석들을 잊을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사실 정말 눈물 나게 고맙지. 신입생 1학년을 단 한명도 안 건드렸으니까. 그때 내가 부탁했을 때 개들이 걱정 말라고 하면서 정말 다 약속을 지켰지. 그러고 보니까 나도 보인학교가 상고 때부터와 상당히 많은 세월을 여기서 보낸 거지. 이게 내 이력인데... 여기서 쓸 만한 게 얼마 안 될 것 같다. (웃음)

듣는 내내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여기저기 많은 학교에 스카우트되시고, 심지어 교과서까지 집필하셨다니. 정말 교사가 꿈인



지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학교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 40년 동안이나 교사 생활을 했는데, 학교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말이야, 건전한 시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해. 그렇지 않니?

학생이 있다면 문우식 선생님을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P 등굣길이란 급식 시간에 항상 뛰지 말라고 하시고 지도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M 그럼 당연히 있지. 지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학교생활을 오래 동안 했잖아. 40년 동안이나 교사 생활을 했는데, 학교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말이야, 건전한 시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해. 그렇지 않니? 학교 생활이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하면 되겠냐? 지금 내가 학교 등교생들 등굣길을 지도하는 정문 옆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길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어. 한 학생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자전거를 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오더라고. 그런데 그 거치대가 있는 길은 또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이기도 하잖아? 그런저 급이나 되는 차 한대가 그렇게 속력 내면 안 되



우리 보인고 학생들이 밝은 모습으로 인사해 줄 때가 정말 기분 좋다고 말씀하시는 문우식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셨다. 늘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면 친구가 아닌 적이 된다고 말이다. 사진, 인터뷰 중인 문우식 선생님과 채현민·강지환 기자

는 곳인데 뺨다 속력을 내고 오더라고. 그렇게 그 둘이 정면으로 부딪치는데, 사람이 공중으로 붕 뜨더라고.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여긴 정말 위험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배움터 지킴이라는 일을 하게 되었지. 내가 학생부장 선생님, 교장, 교감선생님께 이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학생들이 거처대가 있는 쪽으로 자전거 타고 오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서행운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부탁했지. 내가 거기서 안전 지도를 해서 사고가 안날 것인 지 알 수는 없어도, 만일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내가 하나라도 방지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겠다고 했지. 그렇게 사전에 약속을 받았어. 먼저 돌아가신 이석원 교장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그만 두신 성광재 교장선생님한테도 그렇고. 또 다른 교장 선생님들도 몇 분 지나가셨는데 그 분들에게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한 후 그런 일을 한 거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건 너희

들도 알고 있을 테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동안 이러한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P 학교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M 내가 생각하는 보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학생들이 나에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해 줄 때가 정말 기분 좋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 교실에 들어가 이야기 해 주고 싶지만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수업을 못 들어가고 있어. 예전에는 일주일에 6시간씩 수업했어. 1학기는 1반에서 6반, 2학기는 나머지 반에 들어가 일주일에 반마다 한번 씩 들어가서 인성교육을 했어. 내가 지도하고 싶은 것. 건전한 시민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읽었던 내용들을 전부 정리해서 강의를 했어. 근데 내가 요즘엔 그걸 못하지. 하지만 나는 우리 학교도 깨끗한 환경을 가진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집계를

들고 청소를 하는 거야. 내가 보람 있게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축구 선수들이 시합할 때 우리 학교 애들이 많이 구경하잖아? 그런데 그 밑에 쓰레기가 떨어진 게 있어. 그런데 그걸 줍자니 분위기가 그렇잖아. 그런데 주워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할 까봐 두려움을 느끼지만, 지금도 단 한번도 그걸 거역한 학생이 없어. 항상 선뜻 줍더라고. 그걸 보면 학생들의 청소에 관한 개념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부심이 들더라고. 그때 행복감을 느꼈어.

P 그럼 중간에 정리해 보자면 교직 생활은 얼마나 하셨나요?

M 음 계산해 보면 41년을 했네. 보인고에서 인성교육으로 1주일에 6번 한 것 빼면.

P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시나요?

M 물론이지. 우리학교에 젊은 선생님들 모두 열정적이고 예의가 바른 선생님들이야. 다 기억나지.

P 언제까지 교직생활 하실 생각이신가요?

M 사실 금학년도 마치면 그만 둘 생각이야. 더 이상 건강이 허락할 것 같진 않구나.

P 가족관계는요?

M 우리 집사람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들은 자산관리공사에 다니고, 딸은 지금 물리치료사야. 손자도 1명 있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야.



P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있으셨나요?

M 나는 그런 게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선생밖에 없고, 보람도 느끼니까.

P 인생 대선배로서 저희에게 해 주실 말씀은요?

M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했어. 공부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난 절대로 1등 학생을 편애하지 않아. 꼴지를 했어도 최선을 다 했으면, 그게 최고인거야.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라. 늘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 적이 된다고. 자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겠어? 그러니까 꼭 최선을 다하라고.

P 보인고 학생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대해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M 양보하는 마음이란 손해 보는 마음. 다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건 불가능해.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면 죽기 살기로 계단에서 뛰게 되는 거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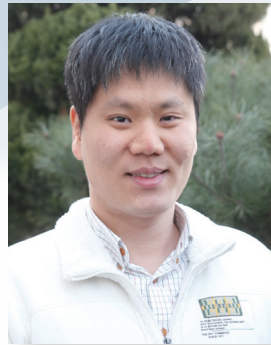
P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M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따지지 말라. 안 따지면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런데 항상 따져서 문제를 만든다니까. 부모나 형제, 친구사이에 안 따지면 될 것을 굳이 또 이기려고 해서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니 그러지 말라고. 친구들이 나 때문에 빛나게 해주고, 좋은 친구가 되는 건 나를 통해 상대방을 빛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후에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부인한테 이기려고 하지마라. 이겨봤자 뭐할라고. 괜히 증오심만 늘어나는 거지. 내가 좀 저주고 격려해 주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뭘지 알아? 바로 칭찬이야. 뭘 계속 따지지 말고 칭찬하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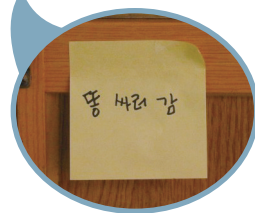
내년이면 이제 문우식 선생님을 뵈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항상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과 헌신은 잊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인터뷰를 통해 더 생생하게 문우식 선생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감하였고, 다른 학생들도 이 글을 읽고 내가 느낀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내주셔서 성심 성의껏 인터뷰에 응해주신 문우식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輔仁**

최선 다한 미래의 삶, 상상 그 이상으로 즐거워

취재 | 채현민 · 안규석



우리는 류민수 선생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늦게까지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인터뷰 장소인 물리실험실에 가서 기다리려고 가보니 이런 쪽지가 있었다. 우리는 모두 웃었다. 역시 재미있는 선생님이다. (P : PlayBoin, R : 류민수 선생님)



P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지편집부 PlayBoin입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족관계나 경력에 관해서

R 네, 저 올해 33살 미남, 독신... 아, 다시 다시 다시 독신은 아니지... 33살 미혼 류민수라고 하고요. 맡은 과목은 지구과학입니다. 올해 이제 보인고등학교에서 처음 근무하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두 분 계시고요, 남동생 한 명 있어요.

P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R 경력은 이제 올해 3년차입니다. 작년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대부고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보인고등학교에 왔습니다.

P 교사가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R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처음 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선생님이 계셨는데 담임선생님은 아니에요. 제가 과학을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 과학선생님이 저한테 매우 친절하게 수업도 재밌게 해주시고 과학적 호기심이랄까? 그런 거 때문에 질문이 많았

는데 그것들을 아주 친절하고 재밌게 설명해 주셨죠. 그때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멋진 선생님이 되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죠.

P 그럼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시나요?

R 저요? 저는 전혀 멋있지 않아요. 그냥 신일뿐이죠.

우리는 선생님의 유머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P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만약 자신이 교사가 아니라면 지금 가졌을 법한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R 저는 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파일럿을 하고 싶었어요. 나는 것을 좋아해서도 있고, 외국을 내 돈 안들이고 가고, 자유롭게 그리고 파일럿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P 그럼 이과에서 과학 탐구 중에 여러 과목이 많은데 왜 굳이 지구과학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R 예. 저는 지구과학이 보통 대기, 해양, 지질, 천문학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천문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밤하늘에 별, 이 넓은 우주의 신비함 그런 걸 생각하면 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천문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지구과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P 그럼 대학에는 천문학이라는 과가 따로 있나요?

R 천문학과가 따로 있지요. 근데 그건 천문학만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 비전이랄까? 그게 뭐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 좋은데,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합적으로 본거지.

P 그럼 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인고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R 보인고의 첫인상은 일단 교문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잔디구장. 사실 잔디구장 있는 학교는 몇 없잖아요. 여기서 축구 하면 참 재밌겠구

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처음 보인고 왔을 때 먼저 딱 보이는 잔디구장이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P 그럼, 한대부고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왜 굳이 남고에 오셨나요?

R 남자들끼리 부딪히면서 나는 그런 땀 냄새 아 그런 것 좋지 않나? 보인고가 자사고잖아요? 자사고면은 일반고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거기서 내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또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왔어요.

P 지금까지 근무했던 학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요?

R 아...보인고, 사실 남고라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수업할 때 내가 막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끼리 통하는 그런 언어들, 그런 분야들 있



밤하늘에 별, 이 넓은 우주의 신비함을 떠올리며 '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천문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지구과학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류민수 선생님. 인터뷰 내내 역시 갯민수 선생답게 재치있는 유머로 우리를 재밌게 해주셨다.



제 좌우명이 있는데 그것은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닌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하면 재미없고 지루하고 하기 싫으면 할 이유가 없죠. 그걸 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인생에서 얻은 최고의 교훈, 좌우명인 거예요.



잖아요. 그런 것을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던 애기지. 그니까 수업분위가 너무 수업에만 치중하면 지루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남자들이 리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크단 애기지.

P 그럼, 지금까지 근무했던 학교와 다른 보인고만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요?

R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오수시간. 낮잠의 취지는 좋죠. 여러분들 점심 먹고 한창 졸릴 시간인 오후에 20분 정도자고 수업시간에 집중하게 되면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수시간 다음 수업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 시키려는 초반 10분이 조금 힘들니다. 오수시간은 보인고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잔디구장도 빼놓을 수 없죠.

P 보인고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R 음... 이젠 좀 개인적인 것인데, 집이랑 학교가 멀어서 아침에 출퇴근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고 차를 이용하면 1시간 정도가 걸리고 집에서 6시 좀 넘어서 나오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할 때가 있죠.

P 다음에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자신만의 취미가 있으시면 무엇인가요?

R 취미는 디아블로3,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요. 일본, 서양 그런 것은 안 가리고 주로 일본 것을 봅니다. 서양 것은 주로 극장판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운동은 농구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국드라마도 좋아합니다.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봐서는 안 되는 왕좌의 게임을 봅니다.

P 이와 지구과학 시간 때 주로 유머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데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R 주로 목격담이죠. 그니까 33년 동안 살아오면서 목격했던 것, 극히 일부 경험했던 것, 들었던 것, 봤던 것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P 그럼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는 어떤 학생이었는데 말씀해주세요.

R 저는 정말 학창시절에 조용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쉬는 시간에 나가서 농구하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농구하고 다른 말썽은 안 일으키고, 그런데 선생님들한테는 많이 맞았죠. 왜냐하면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많이 도망쳐서 맞았죠. 근대 그것들만 빼면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죠.

우리들은 자율학습을 도망가면 맞는 거 대신 다른 벌을 내릴텐데 선생님의 학창시절에는 도망가면 맞았다는 것은 지금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P 그럼 학창시절에 연애팀은 어땠나요?

R 일단 연애팀수는 3회였고, 기간은 다 100일을 넘겼죠. 그리고 저는 한 여자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한 여자랑 연애하는 중에는 다른 여자랑은 말도 한 마디 안했죠. 내가 이 사람을 나로 인해서 최고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현재는 없어요.

P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3년 사시면서 얻은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R 제 좌우명이 있는데 그것은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닌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하면 재미없고 지루하고 하기 싫으면 할 이유가 없죠. 그걸 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인생에서 얻은 최고의 교훈, 좌우명인거예요.

류민수 선생님의 정말 좋은 좌우명이었다. 우리들도 자신의 좌우명이나 교훈을 하나 정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P 선생님께서는 어떤 학생이 좋고 싫은지 기준을 말씀해주세요.

R 저는 사실 싫은 학생 좋은 학생 구분하지 않아요. 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는데, 그니까 수업 중에 지켜봤으면 하는 거 있죠. 서로에 대한 예의, 예를 들면, 군것질이러던가? 휴대폰,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남에게 불편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자제 했으면 좋겠어요.

P 그럼 보인고에게 또는 보인고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또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R 음...지금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앞으로 3년 후 고3 이후에 펼쳐질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3년 동안 고생한 것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기간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세계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재밋고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꿈을 키워 가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류민수 선생님의 덕담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동기부여가 됐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깊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P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선생님 류민수로서의 각오 한마디를 말씀해주세요.

R 학생들과 선생님, 사제 관계가 아니라 친구같이 친근하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통해 류민수 선생님의 각오를 듣고 헤어졌다. 인터뷰 내내 역시 갓민수 선생님답게 재치있는 유머로 우리를 재밋게 해주셨다. 선생님의 각오가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 후배들에게 좋은 수업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補仁**

학생인가 교사인가? 철학&역사과
박진석 선생님



공부의 본질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아는 것

글 | 김정현 · 문부용, 사진 | 김은빈

처음 1학기에 교실 문을 입장하실 때 그 선생님. 과연 학생인가 선생님인가를 헷갈릴 정도의 외모를 지닌 그 선생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친구같이 친근한 그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친구 같은 그 선생님, 박진석 선생님을 우리 PlayBoin에서 만나보기로 하였다. 과연 오늘의 만남으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P : PlayBoin J : 박진석 선생님)

P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생님을 인터뷰하기 위해 나온 교집 편집부 PlayBoin입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J 예, 저는 박진석이고요. 역사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학년 철학 수업 들어가고 있고 2학년은 세계사, 3학년은 이과반에 한 두 반 정도 수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과반은 그냥 이름만 사회문화 시간이고 1학년은 철학으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P 선생님의 학창시절이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패션 센스를 보니 예전에 껌 좀 씹으셨을 것 같아요.

J 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P 예 (단호)

J 아유, 저는 되게 착한 학생이었고 정말 순수함의...근데 너희들도 다 이렇게 돼 걱정하지 마. 나이 먹으면 다 돼요. 착한 학생이었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학창시절에도 너희들이랑 똑같이 10시까지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분위기였고 그때는 또 분위기가 달랐던 게

체벌이 불법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선생님도 학생들과 때리고 맞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여기서 선생님의 학창 시절을 들으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학교생활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

P 그러면 고등학교는 서울 이쪽 주변이었나요?

J 아니요. 지금도 집이 안양이어서 안양 주변에 있는 학교 나왔고요. 남학교였어요. 그래서 보이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걸 보면 제 학창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즐겁습니다.

P 역사학과를 나오셨는데 철학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J 사실 이제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나마 철학이랑 철학자들의 생애라던가 철학의 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목인데 사실 그거는 철학에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한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양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뭐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수업이에요.

철학 수업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너무 어려운 철학자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실생활에서 아니면 재미있을 만한 주제를 선택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니까 전공이랑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 안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서 철학까지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국사 배우다 보면 우리나라 유교라던가 불교의 흐름 같은 것들도 다 배우잖아. 그런 것과 똑같이 세계사도 마찬가지로 철학자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P 철학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어리둥절해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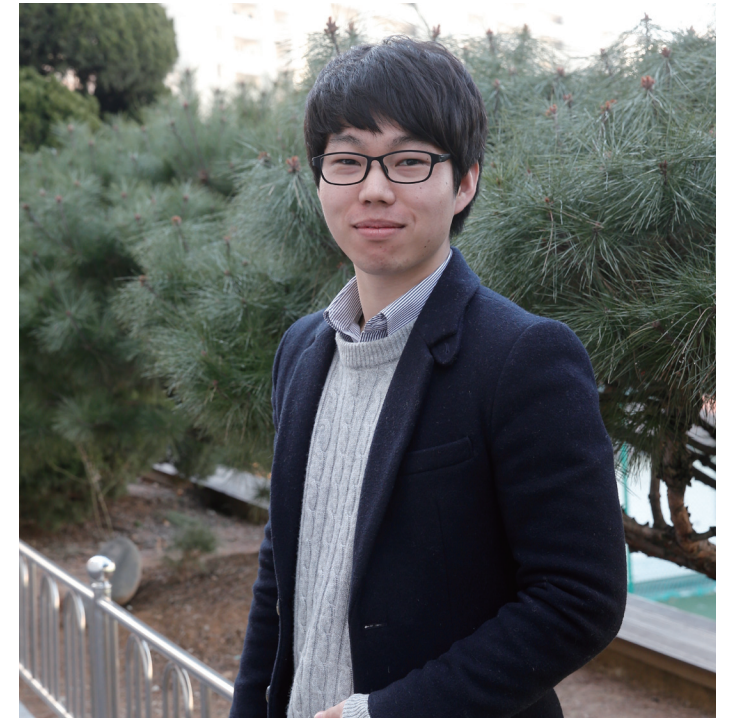
J 어우, 재밌어요. 원래 너희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혼란하지 않으면 생각을 안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거나 또는 가르쳐주는 데로 알고 넘어가 버리는데 혼란을 느낀다는 것은 공부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무엇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고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P 항상 철학적인 문제 상황이 극단적으로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열차로 박는다거나 한 사람 밖에 살리지 못하는 상황들 등등...

J 그래,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역시 생각의 끝이지. 그렇게 가야지만 좀 생각해볼 대목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적절하게 타협해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생각 안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좀 극단적인 예화가 많이 나왔다면 사과해요.

P 철학 시간에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많이 즐기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짜증이 나지는 않으시나요?

J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철학 수업이 교양수업이다 보니까 시험을 본다던가 평가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시험을 봤으면 아이들도 같이 공부를 했겠지요? 신나게 외우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런 수업을 바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는 것에 대해 당연히 마음이 상하기는 하지만 나도 내가 나름대로 준비해온 수업과정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선생님도 학생들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업을 하면서 얻는 재미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학기 초에 비해서 너희들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아 이 수업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잘 따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야 조금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역사과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1학년 철학, 2학년은 세계사를 가르치며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고 계시는 박진석 선생님. 역사 안에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서 철학까지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이 우리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시고 정말 자식처럼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다시는 졸지 말 것을 명심하는 부분이다.

P 역사 수업과 철학 수업 중 한 가지를 고르신다면?

J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나는 역사 전공을 하고 역사를 가르치려고 여기 왔으니까 역사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철학은 역사 수업시간에 진도에서도 쫓기고 뭐 여러 가지 못하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P 젊은 나이에 보인고에 오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J 선생님 집이 여기서 멀기는 하지만 여기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왔어요. 막상 와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P 저희도 이 학교가 좋아요.

J 스스로도 만족하나요?



“우리 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리는데 철학 수업의 목적이예요. 왜냐하면 내가 혼란하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거나 또는 가르쳐주는 대로 알고 넘어가 버리는데 혼란을 느낀다는 것은 공부하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무엇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고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P 네, 공부 분위기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요.

J 선생님도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참 예쁘고 말 잘 듣고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주로 그런 편이라 만족하는 편이에요.

P 보인고에 오신 이후에 후회가 든 적이 있나요?

J 후회? 뭐 지금까지 후회가 될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P 철학 선생님의 철학은?

J 나만의 철학이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 수업시간에 물론 철학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들 하는데 그런 과목들은 사실 대학 입시라던가 당장 다음 시험에 성적을 올린다면 그런 데에 사실 함몰되어 있기 쉽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공부하는 본질은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데 있어요. 철학 시간에 맨날 하는 얘가지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라.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일이에요. 혹은 사실 내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역사학을 선택했던 것도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취업이나 돈을 많이 버는 쪽을 선택한다면 선택하지 않는 학과지만 나의 삶이 그런 식으로 다가왔고 그런 이야기들을 철학 시간에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인생은 그런데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P 그러면 철학 수업은 선생님의 선택으로 하시게 된 것인가요?

J 사실 오기 전에 철학 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P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앞으로 인생계획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라는 직업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J 선생님은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지금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학교 업무하느라 많이 놓고는 있는데 계속 글 쓰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나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질문을 마지막으로 점심시간을 마치는 종소리가 우리 학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었던 욕망을 뒤로하고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역시 우리가 기대를 한 것과 같게 시원 시원한 말씀씨로 우리들의 막힌 귓구멍까지 뚫어주신 것 같다. 앞으로 도 수업 시간에 많은 활약 보여주세요! **輔仁**

꽃을 품은 무화과처럼...국어과
공혜림 선생님

내 도움으로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글 | 강지환 · 박한재(편집부장), 취재 | 강지환, 안규석



아쉽게도 나지운 선생님이 1년 만에 보인고를 떠나가셨다. 그런데 등굣길에 처음 보는 미모의 선생님이!? ‘어? 저 선생님 누구시지?’ 학기 초부터 아름다우신 미모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던 공혜림 선생님을 PlayBoin이 직접 만나 보았다. (P : PlayBoin, K : 공혜림 선생님)

P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지편집부 PlayBoin입니다.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K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올해부터 보인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공혜림입니다. 지금은 2학년 문과반을 가르치고 있고 3학년 문과반과 축구반을 같이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어요.

P 본격적인 첫 질문입니다. 보인고에 오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K 보인고에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선생님 집이 근처라서 학교를 어디 갈까 알아보던 중에 집 근처 학교(=보인고)가 공고가 난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원해서 여기 오게 되었어요.

P 그렇다면 처음 오셨을 때 보인고의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K 첫 인상은 일단은 교내 선생님들이 굉장히 젊어서 선생님에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와 비교가 됐고, 학생들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지원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여기 온 학생들이라 그런지 자부심도 높은 것 같았고, 그런 부분

들이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P 전에 계시던 학교가 배재고였다고 들었는데 배재고와 보인고의 분위기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K 분위기를 비교하면 일단 학생들은 비슷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역도 가깝고, 그리고 중간지역에 있는 학생들 경우에는 거기(배재고)가 기도하고, 여기(보인고)로 오기도 하는데, 일단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인고가 애들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야자는 여기(보인고)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고,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지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인에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기 힘들데 학교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잡아주니까 하다보면 또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다르다보니까 좀 더 열성적으로 지도해주시는 것 같아요.

P 그럼 여고나 남녀공학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지, 왜 남고에 오시게 되었나요?

K 사실 있었죠. 선생님이 여중, 여고를 나왔고 교생도 여중으로, 내 모교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 남학교에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인연이 되었는지 처음 근무한 학교가 남자 중학교였고, 그러다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남학교 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여자학교에 가면 뭔가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반면에 남학생들은 조금 스스럼없이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상처를 잘 안 받고, 좀 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P 학생을 가르치실 때나 보인고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어떤요?

K 가장 힘든 점은 일단은 자꾸 이전 학교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10시까지 남아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긴 한데, 그게 가장 힘든 점은 아니고, 많진 않았지만, 학생들과 일대일로 수업시간이나 아니면 교과외에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을 때, 나는 나름대로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는데, 그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몇 번 있어요. 손에 꼽게. 그럴 때 가장 많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가장 힘이 드셨다는 공혜림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하시려는 마음이 인상 깊었다. 또한 반대로 우리 보인고 학생들이 너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게 하는 답변이었다.

P 그럼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K 가장 좋은 점은 일단은 그래도 수업시간에 굉장히 조는 아이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뭔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이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알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착한 편이에요, 보인고 학생들이. 그래서 웬만큼 심하게 비뚤어지거나 그런 아이 없이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좀 순진한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이 가장 좋은 거 같아요.

P 그럼 좋아하시는 학생타입이 있으신가요?

K 아, 좋아하는 학생타입? 일단은 누구나 선생님이면 마찬가지로 잘하는 학생보다는 수업시간에 눈빛이 살아있는 학생이 좋아요. 뭐 학원에서나 아니면 스스로 워낙 아는 게 많아서 수업시간에 태만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는 학생보다는, 잘 몰라도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는 그런 눈빛이 살아있는 학생이 좋고, 그리고 너무 공부만 하는 학생보다는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리기도 하면서 유머 있는 학생? 그리고 선생님한테 먼저 다가와 주는 학생. 그런 학생을 좋아합니다.

P 그러면 싫어하는 학생타입은 무엇인가요?

K : 싫어하는 학생타입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싫어한 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선생과 학생 사이로 만났으니까 뭔가 미워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는데, 제일 싫어하는 건 이제 무례한 행동을 할 때? 그런 건 정말 제가 예외적으로 싫어하는 학생이에요.

P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신가요?

K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아 여러 명이 떠오르긴 하는데 한 명만 이야기할 하자면 선생님이 남자 중학교에 근무했을 때 여기(보인고)랑 분위기가 매우 달랐어요. 남중의 분위기는 너도 잘 알잖아 여기랑 많이 다르단 말이야. 같은 남학교인데도 아이들이 사춘기이기도 하고 되게 통제되지 않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두 달 정도 임시담임을 맡아서 반을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완전 그냥 난장판, 개판이었어요. 분위기가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고, 그냥 자기 기분에 끌리는 대로 막 행동해서 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한명이 되게 인상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난장판인 곳에서 흡속의 진주 같은? 항상 나를 보면 대답도 잘해주고, 그 애가 또 국어부장이었어요. 내가 항상 수업시간마다 한 명, 부장을 정해주는데, 항상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학교 가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제잔데, 지금 여러분이랑 동갑일거예요.

P 저희가 알기로는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K 어... 좀 민망한데, 아무래도 학교에 젊은 여자 선생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여고에 가면 남자선생님들이 다 인기가 많은 편인 것처럼 선생님도 그런 이유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선생님들이 모두 아이들과 잘 지내서서 특별히 나만 인기가 많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P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만의 장점이 있으신가요?

K 나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제가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처음에 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나는 내가 가르치는 일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뭔가 고등학교 때 수업시간이나 교실

에 있을 때도 모르는 친구, 나보다 약간 좀 부족한 친구가 무엇을 물어봤을 때, 내가 가르쳐주면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이 재미있었던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람보다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게 저한테 그게 너무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장점이 라고 생각하면 제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내 입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랑이 많은 성격이에요. 정도 많고, 또 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진심으로 한 명 한 명을 대하려고 하는게 그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음... 그 부분이 좀 느리고 시간이 걸릴 지라도 사람을 대하려할 때 진심으로 대하려 하고, 정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제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하고, 정이 많으시다는 공혜림 선생님.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까지 뽑으실 정도라면 공혜림 선생님에게 교사는 천직이 아닐까?

P 단점은 무엇인가요?

K 단점은 이게 좀 양면 같은데, 정이 많다보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반대로 상처를 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하나 있었을 때 좀 털어 버려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하면서 낙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건 이제 성격에 있어서 좀 내가 더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P 그러면 가끔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건의 진상과 본인의 피아노 실력은 어떠신가요?

K 아 선생님이 대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가 피아노 치는 거였고, 너네도 공부하다가보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하나씩 있잖아, 남자아이들의 경우,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뉴에이지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그거를 스트레스 받을 때 악보 뽑아서 혼자 치면서 나만의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었고, 대학교 가서도 관심이 있어서 밴드부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피아노 치는 것, 음악 듣는 것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음악실에 선생님들하고 시간이 비는 경우가 있으면, 점심시간에 같이 내려가서 음악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 그래서 같이 그런 여유를 짧지만 가지죠.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내 입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랑이 많은 성격이에요. 정도 많고, 또 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진심으로 한 명 한 명을 대하려고 하는게 그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공혜림 선생님과 기자들.
PlayBoin의 예상대로 공혜림 선생님은 역시 아름다우신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셨다.



P 그럼 취미는 음악듣기와 피아노치기 이신가요?

K 네, 제일 좋아해요.

P 이게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학기 초에 학생들이 박진석 선생님의 약간 그렇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 뭐, 알겠지만 전혀 사실무근이구요. 자리가 옆자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옆자리고 식사를 하러 갈 때나 자연스럽게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네는 꼭 그런 것만 보잖아! 근데, 두루두루 젊은 선생님들, 올해 새로 오신 분들 다 친하게 지내거든!

P 그러면, 자신을 다른 무엇인가에 비유한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K 어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나를 무엇인가에 비유한다면? 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먼저 하자.

많이 곤란해 하시는 공혜림 선생님. 문학 선생님이시라 어떤 비유가 나올까 굉장히 기대했는데...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더 곤란할 지경이었다.

P 네, 그러면 국어(문학)선생님 공혜림의 앞으로의 각오는?

K 나의 각오? 사실 내가 국어과목을 가르치면서 '나한테 배우는 학생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처음에 품었던 때보다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변화하는 거 같기도 해요. 근데 나의 각오라고 한다면,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로 입시의 별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국어시간에 배우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기보다는 도와주면서 그런 변화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지켜봐주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것이 나의 각오예요.

P 이제 아까 그 질문만 남았는데요!

K 이 질문만 남았어? 아 이거 어려운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아! 선생님 갑자기 생각 난거 있다! 대학교 때,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인데, 김지하(?) 시인의 무화과라는 시가 있어요. 무화과가 열매 안에 꽃이 피는 과일인데, 보통은 씨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난 다음에 열매가 자라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꽃 없이 열매 그 자체가 꽃인 과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에서 무엇이라고 말 하나면, '무화과라는 꽃은 겉으로 화려한 꽃이 피지 않아도, 열매 자체로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간직한다.'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나는 내가 겉으로 화려하거나 말발로 막 이렇게 남들을 끌어들이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이뤄내기 보다는 좀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무엇인가에 비유하자면, 무화과라는 열매 또는 꽃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한 우리의 인터뷰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PlayBoin이 만나 뵈운 공혜림 선생님은 아름다우신 외모만큼이나 마음씨 역시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셨다. 자신을 많은 학생들이 이 인터뷰를 읽고 공혜림 선생님에 대해 많이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여자 선생님이신데도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정이 많으시고 사람을 좋아하신다니 꼭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평소 관심이 있었다면 선생님께 먼저 다가가 얘기를 나누며 친해져 보는 것은 어떨까? 끝으로 선뜻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성심껏 대답해주신 공혜림 선생님 감사합니다. **輔仁**

직업탐방 - tN의 '식사를 합시다'
박준화 PD



노력이 가장 중요, 꿈 향해 반걸음 앞서가는 사람되길

글 | 김은빈, 인터뷰 | 김용휘, 김은빈

저희는 이번 진로 인터뷰를 방송 프로듀서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뷰 당시 유명했던 '식사를 합시다.'라는 케이블 드라마의 박준화 PD님을 지인의 소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신이문역 인근 카페에서 1시간 가량 진행이 되었으며 PD님께서 생과일주스도 사주셨습니다.
(P : PlayBoin, J : 박준화 PD)

P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인고등학교 교지편집부 PLAY BOIN입니다.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J 자기소개? 음 뭐 일단 프로그램은 '식사를 합시다'랑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1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예능 쪽에서 일했었어요.

P 최근 PD라는 직업이 많은 학생들에게 선호 직업이 되었는데, PD라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J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티비 콘텐츠를 작가와 함께 제작하고 기획하고 촬영하고 대중에 즐겨워 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표현해서 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니까 쉽게 말해서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재밌는, 대중이 받아 드릴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PD라는 직업을 마냥 어렵게만 생각을 했는데 대중들과 즐긴다는 말을

듣고 뭔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P PD라는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대학, 언론고시) PD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J 피디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피디가 되는냐인데...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져야 할테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양이란 4년제든 대학을 나오지 않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어요. 하지만 대학을 나오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긴 하겠죠? 학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피디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직종적인 피디 아니면 쉽게 생각할 때 피디가 되려면 방송사를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 아니면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다가 피디가 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피디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사실 피디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본인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피디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전까지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는 끈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디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 꿈이라고 해도 사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안에서도 스스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일을 조금이라도 잘 할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노력을 많이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장래 희망이 되는 시간을 많이 단축했으면 그 직업에 대한 재미를 느낄 때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려워서 본인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대중이 보는 일반적인 콘텐츠를 가장 잘 만들겠죠? 무슨 얘기냐면 공감대가 있거나 재미있거나 소통이 되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엄청난 노력, 그런 노력 안에서 중간에 힘들어 포기하게 되면 피디가 못되는 것이고 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상태 안에서,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본적인 창의력 한 걸음이 아니라 반걸음을 앞설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시청률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그 정도 능력만 있으면 피디가 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다만 피디가 되는 길이 빠르지 늦는지 정도만 차이가 나는거예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제일 빠른 길!!

PD님께서 얘기해주시는것이 정말 하나하나 좋은 말씀들이어서 깊게 새겨들었던 것 같고 저런 마음가짐과 태도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성공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뭔가 엄청 진지한 진로 상담을 받는 느낌이었을까?

P PD라는게 한 프로그램에 총 책임자인데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J 사람들이 얘기할 때 꼭 이야기 하는 게 밤샘 작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로 밤샘 작업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일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부분, 선후배와의 관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피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의 결과물이 신청자나 주변 지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원하고 시청자도 원하니까. 그래서 평가받을 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을 때 가장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조율을 잘 못할 때 힘들겠죠. 그런 와중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피디로서는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약하자면 사람들과의 소통의 모습, 소통을 하는 스킬이 부족할 때 힘들고, 나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을 때 힘들겠죠?

P 한 작품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J 과정이요? 처음에는 드라마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갈지 무슨 얘기를 할지 고민하죠. 저 혼자 고민 할 수도 있고 작가랑 고민 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먼저, 기획 의도를 생각 하게되죠. 기획 의도가 이제 갖춰지면 관련해서 그 다음 자료 조사를 하겠죠. 어떤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어떤 요소가 있을지 고민을 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기획된 내용에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맞는 성격과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탄생하게 되죠. 이를 바탕으로 대본 작업을 하죠. 대본을 만들어 내고 작가랑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갈지 뭔가 학급에서 회의하는거랑 많이 비슷해요. 점점 디테일해지고 그 다음 캐스팅을 하게 되요. 직접 만나서 배역이랑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보고 대화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연기자들의 연기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연기 방법 같아요. 캐스팅이 끝나면 스텝을 모아요. 촬영, 조명, 음향, 코디, 무대 다 준비하고 촬영 장소도 다 알아보고 세트를 지을까 말까도 고민해보고 그런 단계가 다 필요해요. 스텝 구성 단계와 사전 조사 대본과 부합할 수 있는 준비 작업들을 합니다. 촬영 하기 전에 대본 리딩을 하게되요. 그 연기자들이 자신이 맡은 캐릭터와 잘 맞는지 한번 연기해보는 거예요. 작가와 피디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보고 작가나 피디가 “저 캐릭터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게 더 나올 것 같네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촬영에 들어가게 되요. 물론 그 전에 회식을 한번하고(웃음) 촬영을 할때는 피디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만들어가는 중에 스텝과 연출, 연기자와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고 촬영이 끝나면 편집을 하게 되는데, 편집에는 뭐 특수 효과, 음향, 영상편집을 하게 되요. 기본적인 편집을 끝내면 믹싱실에 가서 음악, 현상음, 효과음과 영상을 합쳐서 완벽한 테이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 테이프가 방송국에서 방송 송출을 통해서 TV에 나오게 되는것이랍니다. 복잡하죠?

원래 알고 있었지만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했을 때 나오는 결실이구나.’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P PD라는 직업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보세요?

J 어떤 직업이든지 자신이 열심히 즐겁게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직업의 전망은 밝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을 뽑으면 그게 가장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어떤 능력을 다른 무언가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직업중 하나가 바로 피디라고 생각해요.

P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요?

J 드라마를 만드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형태가 꾸준한 꿈이고 목표인데,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보여



한국에서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막돼먹은 영애씨'. 그리고 '식사를 합시다'는 각자의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한 현대인들이 하나되는 이야기를 통해 이웃의 따뜻함을 되새기고 있다. 모두 박준화PD가 연출하고 있는 드라마 작품이다.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 좋은 지인들하고 좋은 단편 영화 정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꿈이나 목표라면 꾸준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게 꿈이고 목표겠죠.

P 마지막으로 PD를 꿈꾸는 (보인고)학생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J 피디가 꿈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 꿈이라고 해도 사실 어떤 직업을 처음 시작 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안에서도 스스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일을 조금이라도 잘 할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노력을 많이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장래희망이 되는 시간을 많이 단축했으면 그 직업에 대한 재미를 느낄 때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노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노력이 공부가 될수 도 있고 모든 것이 노력을 하는 와중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뭔가 결실을 얻을 때 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P 지금까지 PLAY BOIN이었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輔仁**





월드컵을 통해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좋은 클럽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렇게 많은 스타들이 월드컵의 활약을 토대로 이적을 했고, 새로운 별들이 등장했다.

뜨거운 열기가 지나간 축구 시장,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글 | 이강현

전 세계인의 축제인 브라질 월드컵이 무사히 치러졌다. 시작 전에는 치안이나 경기장 건축 문제로 말이 많았지만 축제의 열기를 누를 수는 없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회인 만큼 축구선수에게 월드컵은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쉽게도 한국은 조기 탈락하며 32강에 그쳤지만 독일은 우승을 거두고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와 칠레와 같은 국가들은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다시 말해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좋은 클럽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많은 스타들이 월드컵의 활약을 토대로 이적을 했고, 새로운 별들이 등장했다. 이제 그 스타들의 행적을 소개하려고 한다.

레알 마드리드 '하메스 로드리게스'

이번 월드컵의 주인공으로는 단연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택할 것이다. 콜롬비아 대표팀으로 뛰면서 우루과이전 발리슛을 포함해 6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오르며 골든슈를 받은 것은 그를 단번에 스타선수로 만들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로드리게스의 활약으로 콜롬비아 대표팀도 8강에 오르면서 로드리게스의 활약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러한 월드컵 효과로 그는 축구선수들의 꿈의 구단으로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로 역대 4위 이적료를 기록하며 이적하게 되었다. 그는 약 8,000만 유로(1,101억)의 이적료와 700만 유로(약96억)의 연봉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한다. 뿐만 아니라 또한, 로드리게스 이외에도 콜롬비아 주전 골키퍼 데이비드 오스피나는 아스날로 이적하였다. 폭발적인 드리블로 주목을 받았던 후안 파드라도 역시 많은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이적이 무산되며 피오렌티나와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디 마리아'

2014 여름 이적시장에서는 프리미어리가 14,095억원, 라리가가 7,169억원, 세리에A가 4,386억원, 분데스리가가 4,217억원을 쓰는 등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일단 대표적으로 EPL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1031억에 맨유로 이적한 디 마리아를 들 수 있다. 지난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있었던지라 월드컵 활약은 그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다. 맨유는 페어플레이 규정(FFP) 때문에 주춤하고 있던 파리 생제르망 대신 디 마리아를 가로챘다. 그에 이어 월드컵 스타 두 명을 더 샀다. 아르헨티나 수비수 로호와 네덜란드 미드필더 달레이 블린트가 그 주인공이다. 아스널도 590억원에 바르셀로나의 알렉시스 산체스를 손에 넣었다. 3년 전 우디세네에 지불한 이적료 335억원 보다 57% 오른 금액이다.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도 중요했지만 월드컵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첼시도 스페인 플레이메이커 파브레가스와 일본을 능욕한 코트디부아르의 수호신 드록바를 영입했다. 라리기도 무시할 수 없다.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이번에 최고의 스타를 영입하고 세계 최강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했다. 또한 독일 군단의 중원 크로스를 영입해 알론소를 대체하였고, 코스타리카 8강 돌풍의 주역 나바스를 영입하였다. 레알 마드리드 라이벌 바르셀로나는 월드컵에서 또한 한 번 깨물기를 보여준 수아레스를 1,317억에 영입하였다.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여름 이적시장이지만 또 그만큼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빅클럽들의 행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겨울 이적시장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연탄 한 장

글 |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로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파스한 밥과 국물 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덩어리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시인 안도현

경북 예천 출생.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 당선되어 등단. 1984년 〈서울로 가는 전봉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안도현의 시는 민중시에서 서정시로의 이행해 간다고 한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 '모닥불', '그대에게 가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리운 여우', '바닷가 우체국',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등의 시집과 '연어'관계, '사진첩', '짜장면', '증기 기관차 미카' 등의 어른을 위한 동화, '외로울 때는 외로워하자', '사람' 등의 다수 산문집 펴냄.